

## 샤넬컬렉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

박숙현\* · 이관이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 Tendency to Post Modernism on Chanel Collection

Sook-Hyun Park\* · Kwan-Yi Lee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Tong Myung University

(2006. 3. 13.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Chanel Collection, a famous brand acknowledged for its modern style, was influenced by post-modernism. The scope of research includes initial concentration on 1920's boyish style of Chanel as well as its relative influence on modernism. Secondly, the research concentrates on Chanel Collections that Lagerfeld's designs were best represen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tendency to eroticism for fashion business, tendency to retro-fashion, tendency to popularization of sub-cultural group's fashion, tendency to no-match-mix, tendency to androgynous style, tendency to emphasis on ornaments in clothing.

**Key words:** Modernism(모더니즘), Post-modernism(포스트모더니즘), No match mix (노 매치 믹스), Androgynous (양성화)

### I. 서 론

20세기 초 기계생산품에 적합한 새로운 미적 규범의 확립과 함께 사회전반에 걸친 변혁으로 근대적인 것에서 벗어나 기능주의적 모더니즘 시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문화 사회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모더니즘적 경향들은 개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는 디자인 다원주의적인 포스트모던한 경향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시대문화적 흐름은 패션분야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되어졌다.

가브리엘 샤넬에 의하여 선도되어 1920년대에 유행하였던 직선적 실루엣의 보이쉬 스타일(boyish

style)은 의복의 민주화라는 이념아래 단순성과 기능성 그리고 대중성을 강조하여 모더니즘의 대표적 스타일로 자리잡았고, 샤넬은 현재까지도 가장 모던한 형태의 복식스타일을 창조해낸 디자이너로 손꼽히고 있다. 이런 모던한 스타일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샤넬”의 디자인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칼 라거펠트는 모던한 디자인을 계승하면서 현대적 시대사조에 적합한 포스트모던 경향을 독창적으로 접합하여 개성과 감성을 충분히 표현하는 패션디자인 작품을 내어놓음으로써 이 시대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샤넬 브랜드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하나의 패션양상을 분석·평가하는 차원을 넘어서 20세기와 21세기 초의 복식문화의 흐름 전반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유효한 준거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Corresponding author: Sook-Hyun Park  
E-mail: shpark@k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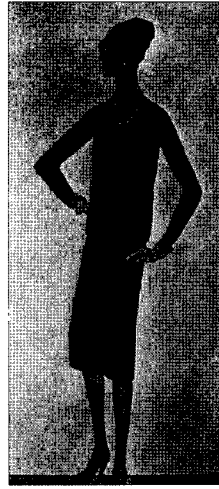
이행 변화가 모더니즘 스타일의 대표적 브랜드인 샤넬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샤넬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 모던한 특성들을 근거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정신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브랜드 디자인 컨셉의 방향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는 복식사 및 예술양식사 관련 서적 및 논문 그리고 샤넬컬렉션 작품 사진 등을 중심으로 문헌연구 방법으로 행해졌으며, 연구의 범위와 방향은 먼저 1920년대 보이쉬 스타일을 중심으로 하는 샤넬의 오리지널 스타일에 나타난 모던한 특성들을 고찰해보고 둘째 시대정신과 조형예술 분야에 나타난 포스트 모던한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세기말에서 21세기 초 샤넬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들을 중심으로 포스트 모던한 경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가브리엘 샤넬의 모더니즘 디자인

### 1. 모더니즘의 개념 및 특성

모더니즘(Modernism)은 제한된 의미로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서구예술에 풍미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운동, 혹은 예술의 작품형식과 사상을 설명하는 개념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sup>1)</sup>. 기계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의 창출이 불가피하여졌고,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따른 형태를 현대 디자인으로 완성시킨 것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가 설립한 바우하우스(Bauhaus)의 이념에 의해 나타난 간결하고 기하학적이고 기능적인 형태의 조형물들이 탄생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모더니즘적 특징들이 나타났다<sup>2)</sup>. 모더니즘이란 이성에 기반을 둔 객관성의 논리로 20세기 전반기 시대정신을 형성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객관성의 논리에 따라 모던시대는 전체성, 보편성, 총체성, 통일성 등을 중시하여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규범과 체제아래 모든 삶들이 종속되는 사회구조를 형성하였고, 모던 사회에서는 엘리트 계층과 대중은 엄격히 구분되었으며 엘리트계층이 시대를 지배하는 주체가 되었다<sup>3)</sup>. 기능주의적 모더니즘의 태동은 기계화, 표준화 그리고 산업발전에 의한 대량생산의 이념과 밀접하게 관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함의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개념의 이데올로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근대화 운동이었다<sup>4)</sup>.



<그림 1> 단순성을 강조한 리틀블랙드레스, 1926년  
『Le Temps Chanel』



<그림 2> 실용성이 강한 저어지 수트, 1928년  
『Chanel-The Couturiere At Work』

### 2. 샤넬 디자인의 모더니즘적 특성

제 1차 세계대전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변혁과 함께, 근대적인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던디자인 시대로 향하는 계기가 되었다. 복식에서도 이러한 영향으로 과잉장식과 디테일을 제거하여, 날씬하고(slim), 복잡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가 증가되었다<sup>5)</sup>. 샤넬은 이러한 경향을 일찍 인지하여, 독창적이고 편안함을 중시한 단순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제공함<그림 1>으로써 1920년대의 패션에 지속적인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sup>6)</sup>. 색상의 사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유행색인 원색에 반대하며, 검은색과 베이지를 과감하게 사용하여 현대적인 이미지로 변화시켰고, 특히 검은색<그림 1>을 “모든 색을 이기는 절대적인 색”으로 승화시켜 대중의 색으로 만들었다<sup>7)</sup>. 또한,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도 실용성이 강한 저어지(jersey)<그림 2>나 구김이 없는 트위드(tweed)를 비롯하여 몸의 움직임을 그대로 소화해 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다. 주로 남성의 속옷에만 사용되었던 소박한 소재인 저어지는 전쟁으로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패셔너블한 디자인으로 등장되었고, 이러한 샤넬의 참신한 발상은 전쟁터에 나간 남성 대신 사회에 진출해야만 했던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sup>8)</sup>.

### III.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 패션

####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특성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가 널리 파급되어 논쟁을 불러 일으킨 시대는 1970년대 후반 부터 시작되나 지금까지도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에 대한 의미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9)</sup>.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기본성격이 확고한 고정범주에 머무는 것이 아닌 극도의 탄력적 속성을 지니고 각각의 독특한 영역 사이의 경계를 와해시키며 그 기본 성향도 혼성모방(Pastiche), 패러디(Parody), 역사적 인용, 깊이없음, 의미상실, 주체의 해체, 절충주의, 다원화 현상 등 여러 가지 성격의 혼합으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탈창조, 붕괴, 해체, 탈중심, 분산, 차이, 불연속성, 분열, 소멸, 분해, 탈정의, 탈총체화 등의 용어로 묘사되는데<sup>10)</sup> 이러한 의미는 모더니즘에서 확립되었던 개념들과의 연관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용어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다. 찰스 젠크스(Charles Jenks)<sup>11)</sup>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본질적으로 모더니즘의 지속과 모더니즘의 초월이라는 이중구조를 갖는다고 말하고 이 이중구조의 의미구조는 단순히 엘리트와 대중,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세기 전반기 모더니즘 문화가 대중의 것이 되지 못하고 부르조아 내지는 고급문화의 수준에서 고착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그 대안적 제안으로서 등장한 문화현상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중심과 경계의 해체’를 지향하는 미학적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극도의 탄력적 속성을 지니고 각각의 독특한 영역사이의 경계를 와해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더니즘을 전제로 계승, 단절, 비판, 반등, 또는 대안적 양식이나 문화현상으로 인식되었다<sup>12)</sup>.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해는 그것과 모더니즘과의 관계 또는 연속성여부의 문제를 헤명할 때에만 비로소 충실해 질 수 있다<sup>13)</sup>.

디자인 영역에서는 20세기초에 설정된 기계에 대한 대량생산에 적합한 기능적 순수함을 찾는 기능주의 개념 아래 표준화에 의한 획일성과 객관화가 모두 불가능한 가설에 불과했다는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전례없는 절충주의와 함께 기존의 규범에 대한 해체의 양상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다<sup>14)</sup>. 하이테크 디자인에서 부터 쓰레기 재활용, 범람하는 키치적(Kitsch)사물과 이미지, 기술을 해석하는 디자인으로부터 수공예적 전통

을 끌어당기는 디자인, 과거를 현재로 가져가는 복고풍에서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이고 사이버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들이 인간개성의 중시라는 개념아래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sup>15)</sup>.

포스트모더니즘 지배하에 생산된 예술의 특징은 모더니즘 예술이 추구한 내적의미 전달 및 예술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창조 대신 특별한 깊이가 없고 감정이 메말라 있는 정서의 퇴조현상, 주체의 죽음(the disappearance of individual subject)에 따른 천박한 회고적 스타일 및 복고풍의 패러디(parady) 또는 그것들의 무분별한 혼성모방(Pastiche)<sup>16)</sup>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예술에 있어서 나타난 큰 특징 중 하나는 언어혼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사상과 감정 또는 의식과 무의식의 혼동이 결합된(합리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 이성적인 것과 사상적인 것이 결합된) 진정한 의미의 언어가 아닌 황설수설하는 분열증상으로서 전신분열증과 같은 경험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예술작품 및 디자인 제품에 양식의 다양화가 나타나며 모더니스트들이 철저히 배격했던 장식과 꾸밈이 수용되어 작품의 복잡다단함과 모순 및 애매모호성이 나타나게 되며 이렇게 과거에 가치없던 현상들이 인간 개개인의 삶과 연관되어 점차로 의미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sup>17)</sup>.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론은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이론이다. 상업적 부르주아 문화가 요구하고 강요하는 일률적인 형식을 해체함으로써 일정한 자유공간을 확보하고 그속에서 지금까지 억압되어 있던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해체주의 전략은 J. F. Lyotard, M. Foucault, J. Derrida 등의 철학에서 시작한 흐름으로써 이는 명백히 다원화 시대의 새로운 비판양식으로 볼 수 있다<sup>18)</sup>.

####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후기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대량소비시대의 경제는 개인의 필요와 새로움에 대한 욕망, 남과 다른 차별성과 즉각적 만족 등을 창조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경제논리에 아주 잘 적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패션은 부각되고 있다. 하나의 큰 유행의 흐름속에 자신들을 맞춰야 했던 시기에서 각각의 개성에 맞는 끝없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야 하는 시기의 패션은 무한한 스타일의 혼재를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해 내는 기업가나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좋은 상품으로 인정

받고 있다. 또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하에서 디자인이 너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동시에 도입하게 됨으로써 패션에 다원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패션에는 어떤 규칙도 없이 어느 시대의 어떤 스타일이 복합되었는지도 모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복식에 대한 관심은 ‘지식에서 경험으로’, ‘이론에서 실제로’ ‘마음에서 몸으로’ 변천하는 등 지식의 강조에서 존재의 강조로 가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변천과 일치한다<sup>19)</sup>.

Silverman과 Kaja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착용하는 의상은 개개인의 주관에 대한 필요조건이고 신체를 표현함과 동시에 인간정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sup>20)</sup> Wilson은 ‘의상은 인체를 위한 문화적인 유물이고, 인체의 재현을 우리의 문화적 맥락으로 서술하거나 묘사하는 소재다’라고 언급하였다<sup>21)</sup>. 이성과 지식, 본질적인 가치등 형이상학적인 기준을 중시하던 모더니즘관에서 육체와 물질적인 것의 가치를 더욱 중시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육체는 성의 상품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이 부각되기 시작한 80년대부터 여성의 실루엣은 점차로 슬림(slim)해지기 시작하면서 90년대 부터는 슬림한 전체 실루엣에 신체의 가장 은밀한 곳을 제외한 인체 각 부위의 과도한 노출, 몸에 밀착된 복식에 의한 Body Conscious Line의 과장 등으로 패션계는 에로틱한 분위기를 창출하여 성적 자극의 도구로 여성의 인체를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소비계층을 형성하여 그들이 그동안 기성세대의 스타일을 답습하면서 억압되었던 성적욕구가 분출하면서 패션이미지는 과도할 정도로 성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향도 보였다. 옷은 노출이 심하며 catwalke상에서 모델들의 포즈는 외설적이고 분위기는 레즈비어리즘(lesbeanism) 새디즘(sadism)의 기분이 감돈다<sup>22)</sup>.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중반경부터 한국 젊은이들의 패션에도 유입되어 동양인으로서 전반적으로 풍만하지 못한 유방의 볼륨을 높이기 위하여 두꺼운 스폰지 브래지어의 사용이 현저히 늘어났다. 그리고 하체의 곡선을 살리기 위하여 스판덱스가 혼용된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아주 통이 좁은 일자형 바지(straight pants) 혹은 판타롱(pantalon)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신축성 있는 소재는 몸에 꼭 끼는 디자인 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전혀 운동 및 활동성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인체의 곡선을 잘 살려 현재의 패션을 잘 반영 할 수 있게 되

었던 것이다. 에로티시즘을 주제로 하는 또 하나의 경향은 속옷의 겉옷화 현상이다. 최근 몇 년사이 봄·여름 컬렉션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슬립드레스(slip dress), 란제리 룩(lingerie look)의 유행은 보여서는 안되는 속옷이 일반대중의 거리패션으로 부각되어 모든 계층에서 착용되어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하이패션과 하위문화 패션은 전례 없이 가까워졌는데 60-70년대 나타난 sub-cultural group 들 즉 히피(Hippy), 펑크(Punk), 테디보이(Teddy-Boy), 모즈(Mods), 그리고 스킨 헤드(Skin Head)집단들의 Anti-fashion 내지는 기존의 복식 형태 및 착용방법 등의 파괴를 보여줌으로써 기성세대에 반발하는 그들의 정신을 표현하려 했던 즉 지배문화에 저항하는 것을 근본정신으로 한 혐오스러운 복식요소들이 8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 들면서 부터 하이패션에 나타나 하나의 스타일을 이루고 젊은이들은 이 유행을 추종함으로써 대중화 되어졌다. 70년대 Punk가 보여주었던 옷을 찢고 머리를 부분적으로 밀어버리고 귀를 뚫고 징을 박고함으로써 기존의 지배세력에 충격과 경악을 줌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해소하려 했던 이런 요소들이 이제 서양문화를 이루는 주류 패션에 경멸의 대상이 아닌 “새로움”의 출처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sup>23)</sup>.

자크 테리다(Jaque Darrida)의 해체주의 선언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적 개념과 함께 건축,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조형예술분야에 어떤 일관된 설명을 부여하기 곤란할 정도로 해체의 개념은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을 김주영, 양숙희<sup>24)</sup>와 김지연, 전혜정<sup>25)</sup>의 연구에 나타난 결과 중 대



<그림 3> 에로틱한 란제리 룩  
『V. Westwood』



<그림 4> 해체주의 복식  
『Jean Paul Gaultier』

표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식의 겉옷을 제거, 역전시키고, 란제리, 심지, 안감, 솔기 등 구성법을 노출시킴으로써 외부로 부터 해체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노출적 해체(Disclosure), 의복의 형태와 구조를 파괴하여 충격효과와 긴장감을 주는 파괴적 해체(Destruction), 빈곤해 보이는 디자인 요소 및 디테일 트리밍 즉 패치워크(patch work), 탈색 및 염색, 페이딩(fading) 프링징(fringing) 미완성과 핸드메이드(hand made)를 선택하여 가난한 것 같은 혹은 거지 같은 인상을 보여주는 빈곤적 해체(Poverty), 그리고 의복구성 요소를 통합시킴으로써 의복의 층과 구조를 노출시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파괴하여 복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영역들의 복합체로 만드는 분해적(Analysis) 해체 등이 있다.

#### IV. 샤넬 컬렉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

20세기 초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적절한 복식 형태를 창조해 전성기를 구가했던 샤넬 브랜드가 20세기 후반기인 1983년 칼 라거펠트를 영입하여, 클래식 스타일의 샤넬 이미지와는 달리 아주 독특하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창조했다. 샤넬의 단순하고 기능적인 모던스타일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시대사조에 적합한 디자인 작품들로 구성된 칼 라거펠트의 컬렉션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세계 최고의 컬렉션으로 우뚝 서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대의 디자인 영역에 나타난 다양한 포스트 모던한 경향 중 칼 라거펠트가 자신의 컬렉션에 적용한 포스트 모던한 경향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성의 상품화 현상에 따른 에로티시즘적 경향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육체가 강조되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성적으로 매력 있는 에로틱한 요소들을 강조하는 인체가 이상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성과 합리성보다는 감정과 욕망이 우선 시 되는 사회에서는 인체가 쾌락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여겨지면서 인체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이성중심의 모던시대에 나타낼 수 없었던 서로 다른 성을 향한 욕망은 복식에 의한 신체노출 및 인체곡선의 강조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복식에 있어서 성적 특징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인체곡선을 강조하고 인체의 물리적 노출이 많은 복식의 유행을 가져



<그림 5> 에로티시즘적 경향 '94 S/S Collection

왔다. 따라서 여성의 신체는 상품화의 도구가 된 것처럼 섹시함을 강조하는 의복에 의해 에로틱한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졌다.

인체 곡선을 과장하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전성기였던 세기말에서 세기초로 가까워 오면서 여전히 가슴과 힙 그리고 엉덩이 곡선을 강조는 하지만 조금씩 완만한 곡선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에로틱한 요소를 살릴 수 있는 인체의 성적부위가 강조되는 스타일의 유행현상은 지속되었다. 이는 80~90년대 인체 이상형을 잘 나타내던 클라우디아 슈퍼, 나옴미 캄벨, 린다 에반젤리스타, 헬레나 크리스텐센 등 가슴과 힙이 풍만하고 허리가 잘록한 수퍼모델들이 샤넬의 런웨이쇼(run way show)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슬림한 몸매에 적당하게 볼륨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가슴과 허리, 힙의 차이를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들의 출현이 두드러진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포스트모던 시대의 이상형의 변화에 맞춰 샤넬스타일에도 섹시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다. <그림 5>는 속옷의 겉옷화를 잘 나타내고있는 세기말의 에로틱한 복식 스타일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 2. 안티 패션의 대중화 경향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소비층으로 등장한 젊은 세대(young generation)는 기성세대의 사고와 관념 그리고 전통적 규범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60~70년대 기존사회에 저항하고자 한 젊은이들의 집단이 형성되는데 이들을 하위문화집단(sub-cultural group)이라 하였으며 스킨헤드(Skin Head)·히피(Hippy)·펑크(Punk)·테디보이(Teddy Boys)·모즈



<그림 6> 안티패션의 대중화 경향 '92 S/S Collection



<그림 7> 복고주의적 경향 '05 S/S Collection

(Mods)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의복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켜 그 당시는 그들의 의복을 안티 패션(Anti-Fashion)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시간이 흐르면서 패션의 대중화 현상과 상상 가능한 모든 요소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결을 타고 복식에 도입되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90년대에는 하나의 유행으로 많은 일반인들에게 전파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히피(Hippy)의 레어드 룩(Layered Look)과 펑크(Puck)의 슬래쉬 장식 등이 하이패션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안티패션을 응용하여 샤넬컬렉션에서도 히피나 펑크를 응용한 스타일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그림 6>은 히피스타일에서 파생된 레어드 룩을 잘 나타낸 스타일이다.

### 3. 복고주의적 경향

보들리아르는 ‘현재를 대면할 때 과거를 사용하곤 한다.’ 라는 복고주의적 경향에 관해 언급하였는데 이는 20세기말의 예술양식 및 패션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 하겠다<sup>26)</sup>. 포스트모던 시대에 새로운 창조는 더 이상 없다는 사고 아래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양식을 모방하는 절충주의 경향이 팽배해지면서 예술작품이나 디자인 작품 등에도 복고풍 디자인이 유행하게 되었다. 오늘날 인간 중심적인 시대적 사고는 내면의 진실한 욕구를 표현하도록 하는데 복식에 있어서 과거의 도입은 이러한 개인의 표현력 창출에 자유로움과 만족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sup>27)</sup>.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안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적

절충주의와 다원주의적 특성은 복식의 조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식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양식을 혼성 모방하는 절충주의 경향은 과거의 것을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되어 패션에 복고풍 디자인의 유행을 가져왔다. 샤넬 컬렉션에도 이러한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여 과거 샤넬의 오리지널 디자인 변형 외에도 과거의 복식요소를 응용하는 복고주의적 의상이 발표되었다.<그림 7>은 직선적 실루엣의 20년대 재즈스타일을 재현한 작품이다

### 4. 성의 양성화 (Androgynous) 경향

버지니아 울프<sup>28)</sup>는 “남성이나 여성의 외관을 유지하는 유일한 것은 의복이고 성의 훼손은 그 이상의 것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의 전환은 동요를 야기한다.”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복식에서 나타나는 성의 불명료성은 다른 어떤 특성보다 일탈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성적 불일치 현상은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 또는 바이섹슈얼(bisexual) 현상으로 일컬어진다.

패션에 있어서 성의 양성화 현상을 초래한 페미니즘은 서양문화전통에서 남성위주의 사회 속에서 주류 밖으로 밀려난 타자 중 여성이라는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주의이다. 이러한 현상은 억압되거나 소외된 계층의 복귀현상을 나타내는 포스트모던시대에 성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여성의 지위향상을 꾀하고



<그림 8> 성의 양성화 경향 '97 S/S Collection



<그림 9> 노 매치 믹스 경향 '06 S/S Collection

있다<sup>29)</sup>. 패션에서는 남성적 복식요소를 여성복식에 대입시켜 성의 양성화(bisexuality)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성차별주의에 대한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 칼라거펠트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춰 성의 양성화 경향을 나타내는 남성적 수트를 약간 변형시킨 작품들을 발표했다<그림 8>.

### 5. 노 매치 믹서(No match mix) 경향

모던시대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디자인 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이나 코디네이션이 미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요소들을 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나 코디 방법이 전통적 규범을 파괴하는 신선함을 주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서로 다른 재질 즉 가죽, 니트, 레이스, 비닐, 직물 등 다양한 직물을 한 아이템에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아주 고급소재와 아주 값이 싼 소재를 혼합하여 오프 키취(haute-kitsch)적 디자인들이 유행하였다.

오프 키취는 “고급”이란 뜻의 오프(Haute)와 “천한 것, 하찮은 것”이라는 뜻의 키취(Kitsch)가 합해진 용어로서 포스트모던시대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상에서 자주 등장하게 된 새로운 용어이다. 엘리트 계층의 시대였던 모던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위계층의 복식에 나타난 저급한 디자인요소들이 고급 디자인에 융합되어 조화를 이룬 복식스타일을 오프 키취적이라 말한다.

과거 신분계급에 있어서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의 모방과 경계라는 유행의 수직적인 전과과정인 현대 사회의 산업화기계화로 인한 유행의 획일화와 몰개

성화를 낳게 되면서 대중들의 반발을 야기 시켰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패션에서 부와 빈곤, 고급과 저급의 이분법이 해체되고 절대적 하위개념이었던 빈곤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면서 기존의 고정 관념적인 서구의 미학사상에 변화를 초래하여 고급과 저급의 패션요소들이 함께 융화되는 현상을 야기시켰다<sup>30)</sup>.

샤넬스타일도 이런 경향을 그대로 도입하여 전혀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된 액세서리 코디, 그리고 이질적 소재의 결합에 의한 서로 다른 이미지의 결합, 그리고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과의 혼합 등 상반된 조합에 의한 현대적 부조화에 의한 조화현상을 나타내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림 9>는 아주 섹시한 속옷같은 레이스 탑과 하의에 클래식한 느낌의 두터운 트위드소재의 재킷을 코디하여 노 매치 믹스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 6. 장식 선호 경향

포스트 모던시대에는 모더니즘 양식의 토대 위에서 성장한 완벽한 획일성과 객관성에 대한 비판과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젊은 집단의 반항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경향이 짙어지면서 현실적 삶의 형태도 다양화되어 갔으며 탈 중심화에 따른 개성주의적 경향도 강해졌다. 이에 따라 조형물의 형태도 후기 자본주의 시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여러 가지 과거의 양식도입, 혼성모방, 자연주의 표방, 다양한 장식의 도입 등 조형물의 절충주의와 아나키즘이 대세를 이루어 여러 가지 스타일의 복식



<그림 10> 장식 선호 경향 '03 S/S Collection

이 함께 유행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양식이 공존하여 복고풍에서 사이버 패션까지 다양한 복식유행을 보여주는 디자인 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복식 디자인은 복잡다단하며 장식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모던시대에 나타난 샤넬스타일의 특징은, 디테일이나 트리밍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완벽한 테일러링과 엄격한 비례에 의한 면적 분할, 그리고 단순하고 직선적 실루엣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이행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인간 감성을 중시하는 사상이 대두되면서 개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따라서 샤넬 컬렉션에도 다양한 스타일과 함께 모더니즘에 배제되었던 장식적 성향이 다시 부활한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그림 10>은 깃털, 리본, 색테이프 등 다양한 머리 장식과 여러개의 목걸이, 옷에 장식된 색색의 리본장식 등이 장식선호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 V. 결 론

샤넬 컬렉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의 상품화 현상에 의해 나타난 에로티시즘 강조에 따른 섹시디자인 유행 경향, 둘째, 히피와 핑크 패션 요소를 도입한 하위문화그룹 패션의 대중화 현상, 셋째, 과거 다양한 스타일을 재창조하는 복고주의적 경향, 넷째, 히피와 핑크 패션요소를 도입한 하위문화그

룹 패션의 대중화 경향, 다섯째, 기존의 전통적 복식 규범을 파괴하여이질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이용해 조화로운 디자인이나 코디법을 창조하는 노 매치 믹서 경향, 여섯째, 모던시대 배제되었던 다양한 장식을 선호하는 경향 등으로 나타났다.

샤넬의 모던 디자인이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브랜드의 디자인 컨셉은 시대정신, 사회 현상의 변화, 그리고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을 선도하는 기업이나 디자인 관련 전문인들은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패션 트렌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지 재빨리 포착하여 브랜드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다가오는 미래의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특성을 자신의 브랜드에 결합하여 트렌디한 스타일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Atkins, R.(1990). Art Speak. New York : Abbeville Press, Publishing, p.102.
- 2) 김민수(1994). 모던디자인 비평. 안 그라픽스, pp.48-50.
- 3) 박숙현(1999). 르네상스·포스트모던 시대정신과 복식조형성과의 상관성.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8, p.97.
- 4) 정시화(1992).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 5) McDowell, C. (1984). McDowell's Twentieth Century Fashion. London : Frederick Mulle, p. 25.
- 6) Bond, D. (1981). The Guinness guide to 20th Century Fashion. Guinness, p.65.
- 7) Morand, P. (1976). L'allure de Chanel. Paris: Hermann, p.148.
- 8) 이미숙(1998). 샤넬스타일 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
- 9) 서성록(1993). 한국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미진사, p. 49.
- 10) 임영방(1993).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술 : 건축에 있어서의 다의성과 절충주의-예술문화 3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예술문화 연구소, pp.139-140.
- 11) C. Jenks(1986). What is Post Modernism. London: Academy Edition, St. Martin's Press, p.14.
- 12) 김옥동(1992).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pp.184-187.
- 13) 이승훈(1991).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세계사, p.27.
- 14) 김민수(1997).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도서출판 숲, pp.119-120.
- 15) 김민수(1997), '앞의 책', p.119.
- 16) 정현숙, 양숙희(1997). 20세기 후반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3), pp.502-515.



- 17) John. A. Walker(1985). Art in the Age of Mass Media. Pluto Press, p.82.
- 18) 정현숙, 양숙희(1997). '앞의 글', p.506
- 19) 정홍숙(1995). 포스트모던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복식, 25, p.74.
- 20) Silverman, Kaja(1986). Fragments of a Fashionable Discourse in Tania Modleski (ed.) Studies Inentertainment: Critical Approacjes to Mass Culture. Bloomington, p.145.
- 21) Elizabeth Wilson(1996). Postmodern Body in Juliet Ash and Elizabeth Wilson, eds, Chic Thrills. Pamdpra, p.6.
- 22) 정현숙, 양숙희(1997). '앞의 글', pp.502-515.
- 23) 정현숙, 정홍숙(1997).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35, p.237.
- 24) 김주영, 양숙희(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 현상(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1(8), p.1261-1274.
- 25) 김지연, 전해정(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비교. 복식, 32호, pp.293-312.
- 26) Martin, Richard & Koda Harold(1989). The Historical Mode. N.Y. : Rizzoli, p.7.
- 27) 정홍숙(2000). 서양복식사. 교문사, p.75.
- 28) Woolf, Virginia(1942). Orlando. Penguin Book, p.109.
- 29) 정현숙, 정홍숙(1997). 포스트모던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35.
- 30) 이정후(1998).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2.